

▶ REVIEW - 국립민속국악원 브랜드 창극 '나운규, 아리랑' 시즌2

# 극 대부분의 장면에서 배경음악 삽입... 작품 흡입력 높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가 애잔하게  
호르며 부활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 브랜드 창극 <나운규, 아리랑> 시즌2.

초연 당시, 극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는 반응에 따라 이번 작품에는 창극의 정석을 반영했다. 창작인 만큼 작품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음악을 비중을 높이고 수정 및 보완했다.  
극 대부분의 장면에서 배경음악을 깔고 방창에는 인물들의 삶에 대한 철학까지 녹여넣어 로써 작품의 흡입력을 높이고자 했다.

**초연과는 달리 복잡한 구조  
한꺼풀 들춰져 내용 전달 쉬워져**

**‘범어리 삼룡이’ 회상에선  
장면 이어짐이 매끄럽지 않아**

배우들의 소리와 합창으로 들려주는 아리랑·구아리랑·진도아리랑·밀양아리랑·해주아리랑·상주아리랑을 비롯해 윤현규와 최영희의 아리이는 긴장과 이완의 완급을 적절히 조절하며 유연히 흘러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이다.

작·편곡을 맡은 황호준 작곡가는 “극의 대사를 집중해서 들어야만 이해되는 장면들도 음악의 정서적 흐름 안에서 이야기의 자연스럽게 전개된다”면서 “극중 대화의 감정들을 음악에 이입하여 설사 연결의 리듬을 놓친다 해도 산술(가락) 안에서 극이 읽힐 수 있도록 착시효과를 연출했다”고 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초연과 비교해 극에 억지로 몰입하는 부담감이 덜 했을 뿐 아니라 복잡한 구조가 한꺼풀 들춰져 내용이 쉽게 전달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대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화인 나운규(1902~1937)의 도플갱어인 창극배우·변사 나운규의 삶과 그가 생전에 제작한 영화 아리랑(1926년 작)의 줄거리가 창극으로 재현된다.

작품은 이중 구조로 따로따로 보이자

만, 굴곡진 인생사를 담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야 했던 주인공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창극배우 나운규에게는 자신을 포함한 애증의 가족·예술이, 영화 아리랑 속 최영진 에겐 개와 고양이 같은 약덕 지주와 마름의 관계가 넘어야 할 인생의 고개로 존재한다.

극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통상적인 삶이라 공감 가는 부분이 적지 않으나 보화의 ‘범어리 삼룡이’ 회상에서 보화가 불길 속으로 사라진다던가 가족에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생뚱맞게 다가온다. 이에 나운규가 아리랑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대중적 영화에서, ‘잘 있거라’를 비롯해 사회극 영화 ‘사나이’ 나도항의 문학작품 ‘범어리 삼룡이’ 같은 예술적 영화제작으로의 전환에 따른 재정적 갈등·고통이 부연 설명된다면 극이 매끄럽지 않을까 싶다.  
/정해은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배지 유료화 시행

(재)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부터 게스트, 전주프로젝트마켓(JPM), 프레스 등에게 무료로 발급했던 배지(ID카드)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화제에서 초청된 게스트에 한해 배지를 발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주국제영화제에 참가를 원하는 영화 제작, 산업,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영화인들과 영화, 영상관련 대학 또는 교육기관의 재학생과 재직 중인 직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배지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등록기간은 게스트와 전주프로젝트마켓의 경우, 1차 등록(3월2일~3월31일)은 3만원, 2차 등록(4월1일~4월14일)은 5만원, 현장등록(4월27일~5월6일)은 7만원이다.

배지 신청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jiff.or.kr)를 통해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 뮤지컬 ‘햄릿 시즌2’... 인간관계 더욱 더 부각

햄릿은 왜 고민에 빠졌을까? 그의 고민은 언제나 죽음을 목전에 둔 것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죽는다. 고전 속에서 빠져나온 햄릿은 수많은 작품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뮤지컬 ‘햄릿 시즌2’의 햄릿 역시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실, 너무나 통속적 사랑에 빠진 어머니와 통탄할 난행을 저지른 작은아버지의 밀월애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아들이 누가 있을까! 그것이 햄릿의 운명일지, 그 길로 갈바에... 햄릿 하면 떠오르는 생사의 명대사가 이 작품에선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택의 고민은 고전으로부터 재해석된 햄릿에 이르러까지 유유하게 관통하고 있다.

그의 선택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다.

햄릿도 통속적이다.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선택의 합리성을 부여하는 인간 햄릿에 객석의 내가 오버랩됐다. 인간이기에 선택은 언제나 회오리다. 뮤지컬 ‘햄릿 시즌2’의 무대 장치 역시 그의 요동치는 심적 갈등을 보이려는 듯 돌고 돌고 또 돈다. 인간다운 고민을 하는 햄릿의 모습이 무대에 구현된 것, 바로 이것이 뮤지컬 ‘햄릿’과 ‘햄릿 시즌2’가 다른 점이다.

초연 당시 흥행에 충실한 연출로 음악적 완성도에 집중했다면, 이번 작품은 인간사와 인과관계를 부각해 배우의 시선처리 등을 놓치지 않았다. 한마디로 연극적인 완성도를 높였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뮤지컬 넘버 등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 햄릿이 언제나 죽듯, 뮤지컬 ‘햄

릿’의 뮤지컬 넘버는 원작에 충성을 다짐하며 순서대로 불러지며 그를 죽음에 인도한다.

김수용과 고영민이 더블 캐스팅된 ‘햄릿’ 역은 만족할 수준이다. 오페라의 오빠인 레아티스를 연기한 김동호는 호연에 방점을 찍고 싶다. 여타 다른 캐스트들도 작품의 힘을 더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역시 김광보 연출다운 연출 솜씨 또한 일품이다. 그러나 오차 범위 내로 믿고 싶지만, 일부 배우들의 음악적인 아쉬움은 지울 수 없다.

이 작품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뒤편은 관객이다. 용기를 낸다면 새로운 ‘햄릿’을 평가하는 기쁨이 관객의 몫으로 남을 듯하다. 영국에서 나고, 체코에서 양육되고, 브로드웨이에서 이름을 높인 이 작품은 오는 4월 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에서 공연되고 있다.  
/정해은 기자

## 도, ‘2017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사업’ 선정

전북도는 ‘2017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 공모사업에 군산시·부안군 관광자원을 한데 묶은 ‘정인과 함께하는 내장 바구니, 내 식탁 차리기’ 관광상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사업은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유치에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군산시의 부안군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농촌마을 장인(지역민)과 함께 음식 만들기, 지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국내와 국외, 당일과 숙박으로 세분화하여 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상품은 중국·일본과 관련 있는 관광객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동아시아 3국간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받은 물론 잘 보존된 생태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

생태자연지는 군산 고군산군도·부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람사르습지)·부안누에타운·농촌체험마을이, 주요관광지는 전주한옥마을·전주남부시장·군산근대역사거리·부안채식강·새만금방조제가 코스에 포함됐다.  
/정해은 기자

##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13일)

**▶ 쥐띠**  
48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니 언행에 주의하고 약속은 다음을 미뤄라.  
60년생: 손아래사람으로 인해 근심할 일이 생긴다.  
72년생: 천운이 따르니 하고자 하는 일에도 좋은 결실을 맺는 운이다.  
84년생: 이성으로 인해 관련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 소띠**  
49년생: 일의 결실을 맺으려면 뒷심을 잃지 말라.  
61년생: 기존의 행동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자기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말라.  
73년생: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손재수가 따르는 운.  
85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운이다.

**▶ 호랑이띠**  
50년생: 좋은 기운이 가택으로 향한다.  
62년생: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74년생: 말로 인한 화를 주의하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이다.  
86년생: 힘들었던 사업에게는 사람으로 인해 해결된다.

**▶ 토끼띠**  
51년생: 자신의 예상보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길운.  
63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다.  
75년생: 정신적으로 놀랄 일이 생기니 매사에 주의할 기운이 있고 경계하는 것이 상책이다.  
87년생: 급하게 서두르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긴다.  
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가신 일들이 발생하니 참견은 금물.  
76년생: 뒷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8년생: 의욕이 앞서서 운이나 뒷 사람에게 실수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 뱀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65년생: 소외된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긴다.  
77년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이나 혼자서 묵묵히 해결해야 하는 운이다.  
89년생: 눈앞의 결실을 비리고 행동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 말띠**  
54년생: 점성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라.  
66년생: 연장자의 귀인이 나타나는 운이다. 겸손을 잃지 마라.  
7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0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때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도 좋은 운.

**▶ 양띠**  
55년생: 대인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 있으니 조심하라.  
67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은 운.  
79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91년생: 타인과 대립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해결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 원숭이띠**  
56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문서를 주고받거나 서류를 정리하기에 좋은 운이다.  
68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80년생: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일이 성사되니 동행하면 길하리라.  
92년생: 시비가 따르는 운이니 협동을 요하는 일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

**▶ 닭띠**  
57년생: 모든 일은 내부에서 일어나니 크게 벌리지 마라.  
6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81년생: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긴다.  
93년생: 원형은 불리하니 먼 곳으로 움직일 일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 개띠**  
46년생: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경거망동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70년생: 동기간과 일을 도모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운이니 주의하라.  
82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 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라.  
59년생: 기운이 왕성하지 못하니 내실을 다져라.  
71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다.  
83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위험이었던 실태가 풀리는 운이다.